

■ 'GAP 7팀 프랑스 연수' 를 다녀와서 ②

“인증마크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 생산과 유통,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연결

우리 연수단이 머문 호텔은 바닷가에 있었다. 로스코프 지방은 정말 조용한 조그만 항구로 바닷물이 집담장까지 와 닿는다.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몇몇 동료들과 부둣가로 나가 눈부신 대서양의 태양을 맞으며 바다를 가로질러 놓은 제방을 따라 걸어가며, 멀리 보이는 마을과 정말 맑은 바닷속을 보며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한국에 있으면 골치 아플 정도로 울리는 전화소리가 들리지 않아 너무 좋았다. 부두에는 요트를 즐기는 사람도 눈에 들어왔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노부부의 모습은 평화로운 이 마을 풍경과 너무 잘 어울렸다. 그것도 잠시. 또 이동할 시간이다.

유럽생산이력제 광우병예기 도입 관련단체 조직강화수단으로 활용

생산이력제! 유럽에서는 광우병으로 인해 축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그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대형유통업체들이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단체의 조직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U에서는 모든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생산, 가공, 유통의 전 단계에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력제를 대부분의 사업자가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구체적인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우리는 생산자 자신이 실명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주려고 하지만, 생산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포장지에는 이력사항이 기재되고 않고 바코드, RFID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유통업체는 바코드번호를 조합에 알려주면 조합에서는 그 바코드에 해당하는 생산자 및 일지를 추적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너무 생산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이력추적시스템은 위험발생시 대처비용 절감하고 상표보호, 저적관리에 대한 기여하는 반면 시스템 운영관리비, 위기발생비, 교육 및 훈련비용, 인증비용이 필요하다.

우리는 파리로 돌아와 프랑스 정부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농업회의소 파리총본부를 찾았다.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리,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이 좋아하는 수백만원짜리의 명품들이 가득 차 있는 샹제리제를 지나니



◆ 브레타뉴의 왕자 - 프랑스 브레타뉴 지역 청과물 생산자 조직 공동 브랜드.

대형 오성기가 나무끼는 건물이 있다. 바로 중국대사관. 중국대사관 옆이 농업회의소인데 안내데스크의 중년의 부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자기 동생이 88서울 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리스트라고 한껏 자랑을 늘어놓으며 한국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다.

프, 최고상품에 라벨 루즈 인증 각계 전문위원 엄격한 심사 거쳐 생산과정, 맛, 성상 모두 Best

프랑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은 지리적 표시제, 라벨 루즈, 유기농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주장한 농산물의 특성에 대한 인증 4가지가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의 대표적인 것은 포도주와 치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르도 포도주도 이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은 것이다.

라벨 루즈는 빨간 딱지란 뜻으로 최고의 상품에 주어지게 된다. 생산과정뿐 아니라 맛, 성상 등 모두 좋아야 한다. 그야말로 BEST상품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GAP는 영문 그대로 해석하여 우수 농산물관리제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전성만 확보된 것이지 맛, 모양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수(Good)이란 표현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정말 라벨 루즈처럼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누구나 먹었을 때 차별성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해 볼 만하다. 이런 상품은 다른 제품보다 30%정도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단하다고 한다.

라벨 루즈는 주로 축산물에 대한 인증이 많다. 청과물의 경우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확의 변화가 심해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시스템에 대한 국가인증은 환경, 식량안전, 수익 총체적 연결 합리적 농업 인증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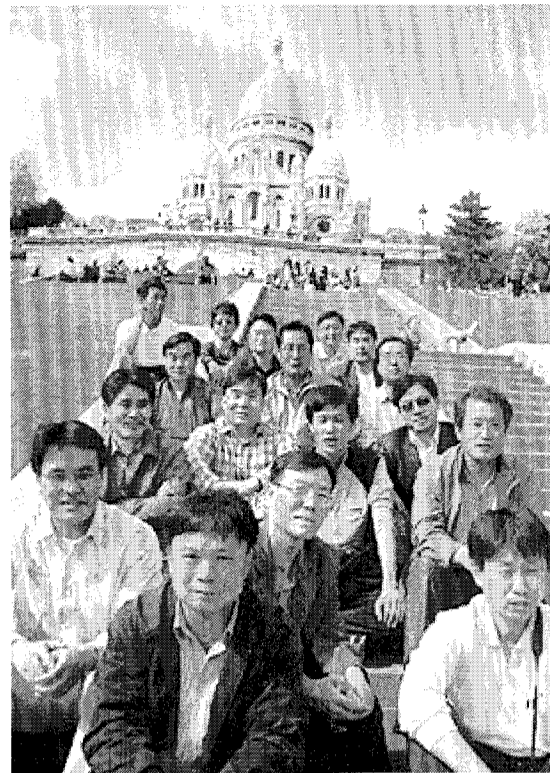
이러한 인증은 상품에 대한 인증

▶ 합리적 농업을 추진 홍보하는 프랑스 민간단체 합리적 농업포럼 사무국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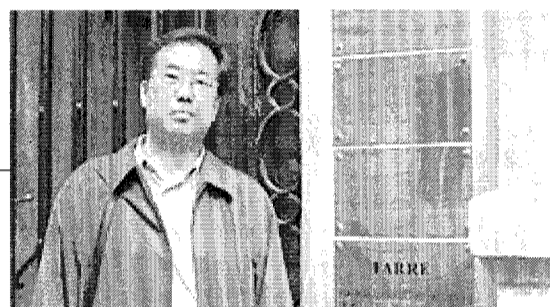
이고 시스템에 대한 국가인증은 환경과 식량안전, 경제적 수익을 총체적으로 연결시키는 합리적 농업이라는 인증시스템이 있다. 이 제도는 농업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자극을 받아 경작지보호, 관개시설, 환경 및 생태계, 동물들의 복지 및 건강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항목별로 자가 점검을 하여 인증회사에 점검을 신청한다. 인증회사는 실제로 인증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증지침에 정한 내용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만에, 아니므로 표시하여 국가에 제출하고 국가위원회(CNAR)에서는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이 결정되면 5년동안 불시에 감사를 실시하여 인증조건을 준수하는지 평가를 받게 된다.

합리적 농업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수일정은 모두 끝났다. 그리고 오후에는 귀국길에 올라야 한다. 프랑스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하던데, 연수기간동안 우리는 너무 가난한 식사를 한 것 같다. 포도주는 매끼마다 마셨지만... 이번 연수는 일정도 빠빽했지만, 연수에 대한 열의도 대단해 18명 모두 진지한 태도로 임했으며, 한자라도 빠뜨릴까 계속 메모하는 등 다시 입시생이 된 듯한 분위기였다. 일주일간 연수를 진행해 준 지역아카데미의 하석건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슈렉 같이 생긴 폴란드 출신 버스기사 아저씨는 출발할 때 우리말로 “갑시다”하고 하는 등 인기만점이었다. 그래서인지 올 때 팀을 두둑히 주었다는 말도 있고 ...

사실, 우리 협회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GAP사업을 추진하고 또 연수의 기회를 준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나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 연수 마지막날 몽마르트 언덕에서 연수참가자들과 함께.



GAP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프랑스 농민의 말대로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명제가 돼가는 것이다. 과거 인적관계에 의존하던 생산과 유통과정이 이제는 품질관리라는 시스템에 의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 회원들도 직시해야 한다.

GAP는 인증마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는 GAP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처럼 인증마크는 없다. 그만큼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인증마크 보다는 그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GAP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다면 꼭 GAP가 아니더라도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경작계획서에 의한 생산량 예측 홍보 및 판매전략 수립도 가능

또한 프랑스는 지역 농업지도위원회에서 2월이면 경작계획서를 농민들로부터 받고, 3월부터 경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부 품목은 허가제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우리 협회도 이 제도를 도입해 우리 회원이 생산하는 물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홍보 및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생산자 단체로서 시급히 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품질관리시스템과 생산 및 판매전략 수립, 회원 조직강화를 통해 협회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국해서 해야 할 일임을 가슴에 새기며 껌껌한 기내에서 불편한 잠을 자고나니, 이미 동쪽 끝 대한민국 땅이다.

(노봉래 사무국장)